

2019.07.24.

제27회 아산서평모임

『한국기독교사 1: 1945년까지』 김명구, 예영커뮤니케이션, 2018.

김명구(연세대학교)

서문

이 책은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신앙과 신학, 곧 19세기 영미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려 했던 저자의 결과물이다. 동시에 저자의 신앙고백서이기도 하다. 기독교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무슨 이유로 갈라졌으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현상화 되었는지 보고 싶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가 한국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끼쳤고 어떤 그룹과 비교할 수 없는 공적과 남겼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비정치를 선언하고 내세웠던 '1907년의 영적대각성'운동이 커다란 저항 에너지가 되어 세계를 움직였고, 한국의 독립과 연결되었음을 확인했다. 내적인 힘이 외적인 힘으로 전환되어 발휘되었고 시대의 거센 조류와 시대적 사조를 극복했음을 확인했다. 개인의 회심과 신앙고백이 역사변혁의 에너지가 되어 냉철한 국제정치의 역학을 넘어섰음도 볼 수 있었다.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복음이 개인영혼 구원의 역할 뿐만 아니라 통전적 구원,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구원으로 연결되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1. 선교의 방식

서학→ 서교→ 천주교, 학문적 동기에서 그 정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천주교의 조선과의 충돌 - 이데올로기의 충돌, 동시에 종교 권력과 정치권력간의 충돌이었다. 이것은 개신교 선교의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

2. 개신교 선교사들의 신학

루터로부터 촉발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복음주의(Evangelism)는 기독교(Protestant)로 불렸고, 이것은 반(反)가톨릭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한동안 뜸했던 이 단어는 존 웨슬리(John Wesley)의 대각성운동기인 18세기 중엽에 다시 일어났다. 종교개혁가들이 칭의를 보다 강조한 반면, 이 시대에 이르러 '회심', '영적 각성', 성화와 성령의 체험이 강조되었다. 이후 복음주의 신학은 감리교도들뿐만 아니라 영국과 웨일즈, 스코틀랜드, 미국에서 일어난 대각성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3.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 방식, 의료와 교육

복음주의자들은 마음의 근저로부터 오는 죄의 자복, 곧 회심을 거쳐 구원의 확신에 이르고 자발적 전도로 이어지는 것을 선교로 이해했다.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회심체험을 통해 구

원을 확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가는 전 과정을 선교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오기도 그것이 신앙으로 이어지고 교회 건설로 연결되지 않으면 성공했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 조선의 근대화 진행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했고 근대 구축의 이데올로기를 제공해야 했다. 박규수의 주도에 따라 형성된 조선의 개화파는 김옥균·박영효 주도의 갑신개화파, 김윤식 중심의 동도서기파, 박정양 등 미국경험자 중심의 정동개화파 크게 셋으로 분류가 되는 데, 개신교회는 정동개화파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4. 의료와 교육선교 - 역사의 이중구조

선교사들은 의료선교를 접촉점으로 해서 기독교회와 연결시키려 했다. 또한 기독교학교를 통해 교회지도자들을 양성하려 했다. 병원과 학교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 단계였고, 복음 전파의 최종 중심지는 교회였다. 그런데 병원과 학교 사역은 그런 기대와 달리 전개되었다. 병원은 “은혜를 베푸는 곳”이 틀림없었지만 영적 영역이 기대만큼 확대되지 못했다. 학교는 근대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었으나 학생들은 복음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

1) pros(긍정)

교육과 의료는 한국에 기존의 인간관을 극복하게 하고 근대 이데올로기를 제공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의식화시켰고 대한민국 헌법 1조와도 연결되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의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거절하게 했다. 근대학교를 통해 민족주의자들을 생산해 냈고 한국정치와도 연결시켰다.

2) cons(부정) - 복음주의 선교사의 입장

의료와 교육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의 선교전략은 조선에 근대문명의 방편으로 각인되었지만 선교사들의 신학적 목표와 괴리가 있었다. 여성과 어린이, 가난한 민초들에 대한 지향과 배려, 민주주의 의식의 각인, 근대 기독교 엘리트들을 배출하는 성과는 컸지만, 선교사들의 기대만큼, 인간 내면의 근저를 뒤흔드는 영적 개심자들을 크게 얻지는 못했다.

5. 지역적 성향

서울과 평양교회가 달랐고, 원산교회가 달랐다. 서울에 위치했더라도 사대문 안에 위치한 교회와 사대문 밖에 위치한 교회가 달랐다. 같은 서북권이라 하더라도 평양 교회와 ‘105인 사건’ 한 복판에 있던 선천교회의 강조점이 달랐다. 중서부권에 있었지만 서울과 인천권역의 복음해석이 달랐다. 같은 경상권이라 하더라도 대구와 경안권역 교회, 부산권역 교회들의 특성이 달랐고, 같은 남장로교회의 터전이고 호남권이라 하더라도 전주와 목포 교회가 서로 달랐다. 유학 지식군들의 고장이자 하더라도 청주와 안동지역 교회의 특성이 달랐다.

6. 평양의 영적 대각성 운동, 1907년의 신학 - 비정치화의 공식 선언

1907년 1월 2일부터 2주간 동안의, 평양 장로교회 연합의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렸다. 남자들을 위한 사경회였다. 공간의 한계로 여성 교인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 여성들은 사창골교회, 산정현교회, 산정현교회, 남문의교회, 서문 밖에 있던 사랑채에 분리해서, 선교사 아내들의 인도로 별도의 저녁 집회를 계획했다. 저학년의 아이들은 기독교 학교에서 별도의 집회를 가졌고, 조사(助事)들과 선교사들이 번갈아 인도하게 했다.

장대현교회의 흐름은 남산현 감리교회의 연합사경회로 연결되었다. 성령 임재가 폭발적으로 나타났고 운동(movement)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비로소 '평양 영적대각성'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교파별 \ 연도	1906	1907	1908
감 리 교	12,791	23,455	24,244
장 로 교	25,162	45,956	58,308

7. 1907년의 사회학, 정치학

1) 선교사들의 인식 교정, 당시 문명론 극복,

1907년 영적대각성운동은, 선교사들의 문명론적 인식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교정시켰다. 평양의 감리교 선교사 무어(John Z. Moore)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작년까지만 해도 나도 은연중 ‘서양은 서양이고 동양은 동양이다’는 식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동양과 서양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근거나, 둘 사이에 어떤 유사성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다른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한국인들은 서양인들이 하는 그런 종교 체험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1907년은 이상숭배와 미신, 게으름, 노동 의욕의 부재, 부패의 문제 등을 말끔히 고쳐놓았다. 회심 체험을 한 이후, 교인들의 생활 태도는 일순간 달라졌다. 한 순간에 한국기독교인들의 윤리의식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것은 교육이나 의료선교의 업적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

2) 천황제 이데올로기 거부

1907년의 신학은 애초부터 일본의 천황과 일본 이데올로기를 거절하게 되어 있다. 아웨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자를 인정할 수 없었고,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역사의 구원자이고 심판자라고 고백하기 때문이다.

7. 영적대각성 운동의 정치학 - 비정치화의 역설

1) 일본을 통해 본 비정치화의 역설

1907년 평양의 영적 대각성운동이 전개되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평양 시내 각 교회로 모여들었을 때, 이토 히로부미는 그 진상을 위해 미국 예일대학 교수요 목사인 랫(George T. Ladd)를 초청했다. 그때 랫은 “평양 인구 1/3에 해당하는” “다수의 신도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이 같은 추세대로 라면 10년 내지 15년 만에 신도수 100만을 얻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분석한 바 있다.

2) 미국교회를 통한 비정치화의 역설

미국 뉴욕의 월간지 아웃룩(*The Outlook*)은 1912년 12월 4일자 기사는 한국 땅에서 일어난 '105인 사건'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동양 각국에서 중대한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 처벌 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 일본 도쿄나 중국 베이징에서는 각기 자기 국민들을 감금하거나 징역에 처하기도 하고, 혹 교형이나 참형에 처한다. 외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에 관계만 없으면 서양 각국들은 전혀 상관한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한국인 123명의 재판 사건으로 인해 동서양 각국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통상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 미국에 있던 이승만은 어떻게 한국교회가 평가되고 있었는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교회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특별히 택해서, 동양 처음으로 기독교 나라를 만들어서 아시아 주에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사명을 맡기려는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이때에 한국교회를 돕는 것이 장차 일본과 중국을 문명화시키는 기초가 된다고 하여 각 교회에서 발행하는 신문, 월보, 잡지에 한국교회의 소식이 그칠 때가 없으며 교회 순례자들의 연설이나 보고에 한국교회에 대해 칭찬하지 않는 것이 드물 정도이다.

8. 그 밖에

기독교와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 민족운동과의 관계

기독교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기독교와 1920년대 공산사회주의의 관계

기독교와 경제민주주의의 관계

신사참배 문제, 한국교회의 일본 전향의 문제

<제목 차례>

기독교 공식 선교 이전의 시대적 서설(序說)

1편 근대와의 충돌

1장 조선과 로마 가톨릭교회와의 충돌1

1. 이데올로기의 충돌
2. 정치권력 집단간의 충돌

2장 근대문명과의 충돌- 제너럴셔만호사건, 신미양요

1. 제너럴셔만호사건
2. 신미양요(辛未洋擾)

2편 기독교 선교의 필연 조건과 그 시작

1장 서구근대문명국가 구축의 이데올로기

1. 북학사상과 개화파의 대두
2. 근대체제의 지향- 탈(脫)중국과 미국식 체제의 도입 희망

2장 새로운 근대사상 정립의 시도- 신앙영역에 대한 거부

1. 개화 방식의 분화
2. 조선 지식사회의 기독교 거부
 - 2.1 위정척사파의 거부
 - 2.2 개화 지식사회의 기독교 인식

3장 이수정에 대한 배척

1.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 파송 간청
2. 이수정의 회심과 신앙 유형
3. 이수정의 사라짐

선교의 시대

1편 기독교 선교의 호기(好期) - 합법적 선교의 시작

- 1장 미 북감리교회의 조선선교 시작
- 2장 미 북장로교회의 조선선교 시작
- 3장 선구자 맥클레이(Robert S. Maclay)
- 4장 만주의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을 통한 복음 전파
- 5장 기독교 선교사들의 입국
 - 1. 갑신정변, 알렌, 정치 역학속의 기독교
 - 2. 선교사들의 도착과 선교 개시 정황
- 6장 의료와 교육선교- 복음 전파의 교두보
- 7장 기독교 병원- 선교신학의 분리
 - 1. 제중원과 그 진행
 - 2. 스크랜튼의 병원 사업
 - 3. 보구여관(保救女館) - 신부적(神賦的) 인간으로서의 여성상 각인
- 8장 기독교 학교 - 복음적 목표와의 괴리 확인
 - 1. 배재학당
 - 2. 광혜원학교(제중원의학교)
 - 3. 고아원학교
 - 4. 이화학당과 정동여학당 - 그 차이점
 - 4.1 이화학당
 - 4.2 정동여학당 - 이화학당과 다른 행보
- 9장 의료.교육 선교의 확장- Pros와 Cons
 - 1. 의료.교육 선교의 특성
 - 2. 의료.교육 선교의 Pros와 Cons
 - 2.1 Pros
 - 2.2 Cons
 - 2.3 선교사들 신학과 그 괴리
- 10장 교회의 공식적 시작 - 서울유니온교회, 벨엘교회, 정동장로교회의 출발
 - 1. 서울유니온교회 - 연합사역의 첫 실험

2. 벤엘교회의 설립과 정착 과정

3. 정동장로교회(새문안교회)

11장 내륙(內陸)으로의 선교지 확보 모색

1. 1887년의 순회전도여행

2. 1888년의 순회전도여행

3. 1889년의 순회전도여행

4. 1891년 이후의 순회전도여행과 평양에 선교거점 마련

12장 여러 교파들의 조선선교

1. 성공회의 선교

2. 러시아 정교회

3.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교회의 선교

4. 미국 남장로교회의 선교

5. 맥켄지와 캐나다장로교회의 선교

6. 대한 기독교회(침례교회)의 선교

7. 윤치호와 미국 남감리교회의 선교

13장 선교지 분할과 예양의 문제

1. 장로교선교연합공의회(The United Council of Presbyterian Missions)의 결성과 발전

2. 감리교와 장로교간의 선교지 분할과 교계예양의 문제

14장 선교방식 - 복음 전도의 선교방식

1. 순회전도 여행과 노방 설교

2. 한국인 평신도 지도력의 활용

3. 매서인(권서인)의 활용

4. 자립과 자조 정책

15장 기독교 선교사들과 정치와의 관계

1. 선교사들과 을미사변

2. 기독교 선교사와 독립협회와의 관계

3. 교육선교의 정치학- 민주주의와 저항 에너지의 발현

2편 복음의 분화와 기독교 기호계 민족주의의 발흥

1장 이승만과 한성감옥의 입교자들

1. 이승만의 회심 - 국가구원론의 발현
2. 한성감옥 수감자들의 회심

2장 황성기독교청년회(皇城基督教青年會, YMCA)의 창설과 그 전개

3장 복음 분화의 사회학- 시대적 이유, 계급·계층적 이유, 지역적 이유

한국교회 시대의 도래

1편 시대적 상황과 한국기독교의 대처 방식

1장 시대적 상황 - 러일전쟁과 을사늑약

2장 대응과 대처 방식의 분화

1. 한국 내부의 대처 방식
2. 일본 기독교의 반응
3. 선교사들의 대처방식 - 분화된 모습

2편 1907년 영적대각성 운동 - 역사의 필연

1장 영적대각성 운동의 토대

1. 나타난 조짐들
2. 하디와 원산부흥운동
 - 2.1 그 발단- 부패의 문제
 - 2.2 하디의 공개 회개
 - 2.3 그 전개
 - 2.3.1 원산과 개성집회
 - 2.3.2 서울집회와 그 결과
 - 2.3.3 평양집회와 인천집회, 그리고 하디의 안식년

- 2.3.4 개성지방 사경회와 하디 집회의 종반부
- 2.4 '재한 복음주의 선교회 연합 공의회'의 조직
- 3. 영적대각성의 토양적 토대
 - 3.1 서울이 아닌 이유
 - 3.2 개성과 원산, 목포와 진남포
 - 3.3 평양이 선택된 이유
- 2장 평양 대각성운동
 - 1. 준비 기간 - 전조의 조건
 - 1.1 시대적 환경
 - 1.2. 감리교와 장로교의 일치 협력, 그리고 하워드 존스톤
 - 1.3 저다인과 목포부흥회- 통성기도회의 시작
 - 1.4 존스톤과 평양 집회
 - 2. 평양 영적대각성운동, 그 위대한 시작
 - 2.1 장대현교회의 장로교 도사경회 - 통성기도의 역할
 - 2.2 남산현교회에 나타난 영적 각성
 - 3. 영적각성의 결과
- 3장 백만인구령운동(Evangelizing a Million Korea Homes)
- 4장 한국 장로교회 정치제도의 수립 - 복음주의 신학의 전통 확인
- 5장 1907년 평양대각성 운동의 해석학
 - 1. 영적대각성 운동의 사회학 - 평등과 신부적(神賦的) 인간관의 확립
 - 1.1 재한선교사들의 인식 교정
 - 1.2 일본 통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
 - 2. 영적대각성 운동의 정치학 - 비정치화의 역설
 - 2.1 일본을 통해 본 비정치화의 역설
 - 2.2 미국교회를 통한 비정치화의 역설
- 6장 동양선교회(Oriental Missionary Society)의 한국선교 시작

3편 기독교와 민족운동

1장 '105인 사건'

1. 사건의 시작
2. 사건의 전개와 결말
3. 선교사들의 헌신과 공헌
4. 한국의 유일한 외교 창구(窓口), 재한선교사들
5. 일본의 두려움 - 영적영역과 근대 이데올로기, 전국적 조직망의 합치

2장 '개정사립학교 규칙'과 '포교규칙' 공포

3장 3.1운동

1. 그 전개
2. 발발원인과 가능했던 이유 - 기독교의 역할
 - 2.1 우드로 윌슨(Thomas Woodrow Wilson)의 민족자결주의 선언
 - 2.2 일본 도쿄주재 한국YMCA에서의 '2.8 독립선언'- 민주주의의 제창
 - 2.3 국가구원의 조건- 전국적 조직망, 영적에너지, 이데올로기적 신념
3. 선교사들의 관여문제, 그리고 그 공헌 - 한국교회 독자성 확인

4장 기독교와 상해임시정부

1. 상해임시정부 수립- 기독교와 대종교와의 관계성
2. 상해임시정부의 진행과 정치적 갈등
3.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발현

4편 기독교와 1920년대- 분리와 분열의 시대

1장 문화정치와 시대적 시련 - 한국사회 분열 대책

1. 사이토의 전략과 그 이면성
2. 일본 총독부의 농업정책 - 그 수탈적 실태
3. 공산주의의 대두
4. 사이토의 종교정책

2장 기독교민족주의계간의 격렬한 분열과 대립

1. 이승만계와 안창호계의 대립 - 지역적 갈등과 분화

2. 동아일보계와 조선일보계의 대립 - 사상적 갈등

3장 한국기독교의 분리와 분열

1. 한국교회 부흥과 기독교 내부의 간극 발생

2. 한국교회와 재한선교사간의 갈등 - 한국교회의 독립과 종파운동의 문제

4장 한국교회의 분열- 시대 상황의 대처에 대한 이견, 지역적·신학적 갈등

1. 민족운동에 대한 교회의 이견 - 교회가 선택한 방식

2. 지역적 풍토로 인한 갈등

3. 사회복음주의와 근본주의의 등장, 교파적 갈등

3.1 사회복음주의(Social Gospel)의 등장

3.2 근본주의 신학의 등장 - 성서의 율법화와 복음의 사회적 사명 비하

3.3 교파적 갈등과 연합운동의 파열

제5편 기독교와 공산사회주의

1장 반기독교 운동과 공산사회주의의 기독교회 공격

1. 당시 언론의 기독교 비판과 반기독교 운동의 전개방식

2. 반기독교운동의 확산

2장 공산주의에 대한 역사적 경험 - 신간회와 만주에서의 경험

1. 신간회운동과 공산주의

2. 만주에서의 공산주의의 기독교에 대한 공격

3장 기독교계의 반응과 대응

1. 기독교사회주의의 출현

2. 사회신조의 제창과 경제민주주의의 제안 - 사회복음주의적 발상

2.1 사회신조의 제창

2.2 경제민주주의의 제안

4장 기독교 농촌운동

1. 그 계기

2. YMCA 농촌운동
3. 배민수의 장로교 농촌운동 - 사회복음주의의 채택과 거부

5장 교회부흥운동과 부흥회

1. 교회부흥운동
2. 부흥회의 변화와 그 위대한 민족적 공헌
 - 2.1 부흥회의 변천
 - 2.2 이용도 정죄의 이유 - 교회 전통의 위배
 - 2.3 부흥회의 역설 - 민족적 공헌과 그 위대성
 - 2.3.1 무식(無識)의 문제
 - 2.3.2 미신이라는 비판
 - 2.3.3 비사회적이고 피안적(彼岸的)이라는 비판
 - 2.3.4 부흥회의 민족적 공헌, 그 역설

6편 한국감리교회의 형성과 한국교회의 전향

1장 남북감리교회의 합동 - 사회복음주의로의 이향 선언과 미국교회 지향 확인

1. 합동과정
2. 사회복음주의로의 이향
3. 미국교회 지향

2장 일본의 기독교 박해와 한국기독교의 전향

1. 신사참배 의미와 강제 과정, 그리고 결과
 - 1.1 신사참배의 의미
 - 2.2 신사참배 강제과정
 - 2.2.1 기독교 학교의 상황
 - 2.2.2 공교회의 상황
 - 2.3 신사참배의 결과, 그 굴욕
3. 일본의 기독교 말살정책과 한국기독교의 전향
4. 한국기독교의 해체